

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1. 기본정보

학과		이름	이*원
파견국가	독일	파견도시	Brandenburg
파견대학	Branden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	파견기간	1년

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<i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i></p> <p>이 학교는 University가 아닌 Fachhochschule 입니다. 따라서 학교도 작고, 학생 수도 매우 적습니다. 구 동독지역이라 동네 곳곳 폐가 같은 느낌이 드는 건물이 많습니다. 동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하고 한적입니다. 신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</p>
2014-2학기 수업	<p>Communication across Culture :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많이 제공하는 편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과목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.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수업인데 팀을 짜서 토론하고, 발표를 해야 합니다.</p> <p>English part : 영어 에세이 쓰는 방법을 배우고, 수업시간에 조를 만들어 수업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.</p> <p>독일어 : 독일어 수업.</p> <p>Profiling Germany : 독일에 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. 첫 시간에 자신이 독일에 대해 알고 싶은 부분이나 흥미로운 점에 대해 발표하고, 그것을 토대로 조사하여 발표를 하는 수업입니다.</p> <p>History of Brandenburg : Brandenburg 지역의 역사를 공부합니다. 격주로 토요일마다 진행되고, 학교 주변의 박물관이나 성당에 방문합니다.</p> <p>International Marketing : 마케팅수업.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매 시간 조별 토론과 발표가 있고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해야 합니다.</p>

2015-1학기 수업	<p>English Foerderkurs: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업입니다.</p> <p>B2B Marketing : B2B 마케팅 수업. 교환학생들은 Oral test로 기말고사를 치릅니다. (한 사람당 20분 정도 소요)</p>
프로그램 운영	<p><i>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</i> <i>예) 오리엔테이션,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, 담당부서, 담당자명, 상담 프로그램 등</i></p> <p>도착한 첫 주에는 웰컴파티, 동네 투어,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. 학교가 워낙 작고 교환학생 규모도 크지 않아서 크게 열리지는 않습니다. History 수업을 통해 다른 교환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. 학교와 학생들의 규모가 작은 만큼 다른 학교들 보다는 프로그램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저는 9월 말-10월 초부터 코트를 입었습니다. 한겨울에는 4시에 해가 지고, 날씨도 우중충해 다소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4월까지 쌀쌀하고 7월에도 더웠던 며칠을 빼고는 자켓을 걸치고 다녔습니다.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 우산은 항상 챙겨 다녀야 합니다.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안전한 편이지만 외국인이므로 밤 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건 비추합니다. 또한 독일 전역에서 가끔씩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를 하는데, 경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시위가 있는 날은 되도록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</p>
숙소	<p>저는 4인 플랫에 살았고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. 부엌과 화장실 두개를 4명이 공유하고 방은 각자 씁니다. 냉장고는 있는데 냉동실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이나 냉동식품은 사와서 바로 먹어야 합니다. 또한 건식화장실이기에 때문에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. 우리나라처럼 통금이나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. 다만 다른 학생들이 파티를 자주 하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은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.</p>

식사	<p>학교 Meal Plan () 학교식당 개별이용 () 홈스테이 () 외부식당 () 직접 요리 () 기타 ()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독일은 밀플랜이 없습니다. 대신 학교에 Mensa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습니다. 한 끼에 2~2,5정도 합니다. 점심시간에만 운영하므로 아침이나 저녁은 기숙사에서 해먹든, 밖에 나가서 사먹든지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.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, 주요도시 이동 관련</p> <p>위에서도 말했듯이 기숙사가 캠퍼스 내에 있고 캠퍼스도 매우 작기 때문에 통학은 문제가 없습니다. 학생증으로 브란덴부르크 주 내에서 교통은 무료입니다. (IC, EC, ICE, 제외)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15,000,000 단위 : 원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155만원	
Fees	Semester ticket (학생증) : 한학기 150-160유로 정도.	
보험료	학교에서 소개해준 보험 가입 한달에 35유로	
숙소	한달에 195유로 (4인플랫 기준)	
식비	학생식당 2-2,5유로 외식비는 터키, 베트남, 타이식당 가면 10유로 안쪽으로 가능. 다른 데 가면 10-15 이상	
교통비	없음	
책값	4만원	
기타1		
기타2		
합계	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*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(분량 자유)*

도착 후 며칠간은 인터넷도 안 되고, 기숙사 와이파이도 없어서 연락문제로 답답한 일이 생기므로 데이터 로밍 하루에 만원 짜리 2-3일 정도 예약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.

수건 비싸니 많이 가져오시고 바람막이도 있으면 챙겨오세요. 삼선은 정말 요긴하게 쓰이니 가져오는 걸 추천합니다. 나무젓가락도 여러 개 챙겨오시면 좋습니다(여행갈 때 유용). 한 장에 천원 하는 시트팩 많이 가져오시면 좋아요. 선물용으로도 좋고. 침구는 제공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가져오거나 학교에 미리 얘기하면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데, 얇고 질이 별로이므로 그거 사지 마시고 도착해서 마트에 가서 사는 걸 추천합니다. 전기장판도 집에 여유가 있다면 들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.

토렌트 사용하다 적발될 시 벌금 100만원 정도 물어야 합니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*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(분량 자유)*

독일 친구들을 사귀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. 초면에도 살갑게 대하는 편인 미국인들에 비해 독일인들은 낯을 많이 가리고 무뚝뚝한 편입니다. 그리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외국인이니 좀 봐주겠지 하는 생각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습니다. 또한 독일인이 영어를 잘 하는 편이지만, 모든 곳에서 영어가 통하지는 않아 의사소통이 안 돼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. 그리고 미국으로 간 친구들보다 영어가 많이 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독일어를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라서 뭘 하러 온 건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독일에서 1년간 지내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트였고, 제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<p>크리스마스 파티</p>	<p>드레스덴 여행</p>
	
<p>꽃박람회</p>	<p>워터스포츠</p>
	
<p>슬라브마을 체험</p>	<p>교환학생 친구들과 여행</p>